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3.11. ~ 3.17.)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출 22 - 28	요 1 - 7
	개인	욥 40 - 잠 4	고후 10 - 갈 3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믿음(1)		
	<p>로마서 1장 17절</p> <p>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p>		



고린도후서 10장 / 주 안에서 자랑하라**개요**

- 1-6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7-11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12-18 하나님만이 판단 기준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며, 외모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론합니다(2,7절). 바울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3절).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육신)과 싸웁니다(4-6절). 바울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대적자들이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7절). 그들은 겉으로만 볼 뿐, 그의 내면과 신앙은 볼 수 없었습니다(10절).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까?(12절)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으로 해야 합니다(13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13,14절).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기 수고를 자랑합니다(17,18절).

누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쪽으로 판단합니다. 신앙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보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요구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3월 12일(화)

출23

요2

욘41

고후11

고린도후서 11장 / 바보 설교

개요

- 1-6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 7-15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
- 16-33 내 약함이 자랑이다

이 장의 별명은 '바보 설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게 말하는 자로 소개합니다(1절).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2절). 그 반대편에는 뱀과 같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3절).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4절). 사도가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과 같은 복음이었습니다(5,6절).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조심하였습니다(7-11절). 그런데 그런 바울의 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사도처럼 겸손히(사도처럼 무보수로)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12-15절). 바울은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에 자신을 어리석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16절). 그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 했던 수고들입니다(17-33절).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30절).

바울은 바보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주제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될만한 일들을 주 안에서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는 주 안에서 살기 위한 수고와 그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그 모든 마음가짐과 수고가 제 자랑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 교회를 세우는 마음**개요**

1-13 내가 무익한 자랑을 한다

14-21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바울은 무익한 자랑을 합니다(1절). 그것은 자신이 체험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1-4절). 사람들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런 체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입니다(5절). 그리고 그 약함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그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6-9절). 바울은 그때야말로 자신이 강하다고 고백합니다(10절). 이 어리석은 말들은 모두 고린도교회를 위한 자기 변호였습니다(11-13절).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고린도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14-19절). 그는 그저 고린도교회의 덕을 세우길 원합니다(19절).

덕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늘 힘쓰고 또 힘써야 할 관심사입니다. 바울의 모든 말은 결국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이나 자신이 깨달은 어려운 지식을 자신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진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지 점검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3월 14일(목)

출25

요4

잠1

고후13

고린도후서 13장 / 그와 함께 살리라

개요

- 1-4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 5-10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 11-13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교회로 갈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1,2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증거라고 선언합니다(3,4절; 고전 15:12 참조).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며 살고, 그런 삶을 통해 온전해 지는 것입니다(5-10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사말을 쓰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11-13절).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은 무언가 증거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을 알고, 자신의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심을 기억하며, 점점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임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그런 이해가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안에는 기쁨도 있고, 주님의 능력도 있고, 우리의 온전함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15일(금)

출26

요5

잠2

갈1

갈라디아서 1장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 개요

1-5 사도와 복음

6-10 다른 복음

11-24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말하면서 복음 안에서 인사합니다(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복음입니다(4절).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게 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을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6,7절). 그러나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8-10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11-17절). 바울은 이후 야고보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저주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저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3월 16일(토)

출27

요6

잠3

갈2

갈라디아서 2장 / 단 하나의 복음

개요

1-10 단 하나의 복음

11-21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

바울은 회심 후 14년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1,2절). 그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도 함께 갔습니다(3-8절).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로부터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9,10절).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바(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난 일입니다(11-13절). 바울은 게바를 책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입은 복음을 다시 한 번 전했습니다(14-21절).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은 개인 의견 차이나 세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 정도로 큰 충돌이 있을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 하나의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복음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를 자유하게 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모든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개요**

- 1-14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음
 15-22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약의 약속
 23-29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은혜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1-9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10-12절). 이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믿는 자에게 그 복이 미치게 하였습니다(13,14절). 구약성경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15-22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23-25절).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약속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26-29절).

기독교는 우리를 율법이나 성경이라는 규칙에 속박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야 할 필요를 알려주는 인도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므로 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유업의 약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순모임

공동체(1)

변화의 장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우상과 마음의 습관들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단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은 성찰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 - 그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
기독교 공동체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 곧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같은 신앙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19:4-5)

다음 순서를 주목하여 보라.

- (1)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 (2)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 역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법을 따라 산다(벧전 2:9).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벧전 1:22).

둘째, 그리스도의 몸 -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몸의 지체들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정', '권속', '집', '형제'(갈 6:10; 엡 2:19; 벧전 4:17; 롬 12:10)이다. 가족은 모든 삶을 함께 한다. 함께 먹고, 생활하고, 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운 몸이다. 몸의 부분들이 역할을 수행하며, 몸의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성령의 교제 - 미래의 모델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의 방법들을 보여준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써 밝게 빛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마 5:14). 현재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나라를 보여주는 미래의 모델이다. 교회는 복음이 일상생활에 일으키는 변혁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한다(롬 12:5). 바울은 “여러분은 서로서로 팔다리와 기관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며, 팔이며, 심장입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아홉 가지 습관들을 살펴보자.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들 처음 세 가지는 서로에 대한 인정이다.

습관1 - 서로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라

롬 12:10 서로 존경하라
약 5:9 서로 원망하지 말라
롬 12:3-8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축하하는데 빠른 사람들이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 *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가 서로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르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 * 긍정과 존경의 반대는 원망이다(약 5:9). 원망은 한숨을 쉬고 끄끖거리는 것이다. 당신은 직접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느낌을 가지도록 짜증이나 경멸을 표현할 수 있다.

습관2 -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

- 롬 15: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받으라
- 고전 12:25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 벧전 5:5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 약 2:1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어떤 계층, 종족, 직업, 그리고 문화가 다른 것들보다 더 힘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라고 명한다.

인종 차별, 계급 차별, 그리고 문화 제국주의는 우리 마음에서 복음을 통해 뿌리뽑혀야 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친구나 친척에게 인종, 계급, 지위가 다르더라도 신앙이 견고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인종, 계급, 지위가 같지만 신앙적 확신은 상관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바란다면, 당신의 편견은 아직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 고린도전서 12장은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사를 가졌다고 말한다(예를 들어, 말이나 리더십). 그것들은 세상에서 더 큰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전 12:25). 우리는 동등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돌보아야 한다.
- 야고보서 2장 1-14절은 가난한 이를 차별하고 부자를 편애하는 것을 금지한다.

습관3 -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

- 롬 16: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약 1:19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 엡 4: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 살전 3:12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

사랑과 애정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라는 명령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딱딱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 야고보서 1장 19절은 따뜻함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한다. 그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속히 답하지 않는 것이다.

1. 세 가지 습관 중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잘 하고 있나요? 제일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상호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피차 권면하고”(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살전 5:11). 우리는 전문적인 상담자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지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속한 사역이다. - 존 스토틀

다음은 공동체 형성 습관 세 가지로,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습관4 -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하라

- 롬 12:10 형제 사랑에 서로 헌신하라
- 벧전 4:9 서로 대접하라
- 갈 6:10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자기 삶의 공간에 초청하고, 서로를 도우며(몸으로든, 재정으로든, 구체적인 방식으로 필요를 공급한다), 서로에게 필요할 때 함께 하는 사람이 된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기에 힘쓴다.

습관5 -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

- 갈 6:2 짐을 서로 지라
- 살전 5:11 피차 권면하라
- 히 3:13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

우리 근심과 약함을 공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해야 한다.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다른 많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서로 권면(격려)하라고 명한다. 본래 의미는 여정 가운데 아주 가까이 서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라는 뜻이다.
-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한다. 짐을 진다는 것은 그 무게와 책임과 고통이 당신에게도 실리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상호작용이 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도우면서 정작 자신의 약한 점은 숨기며 도움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도우려면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심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연약성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해 도움 받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짐을 지는 최고의 모범이다(갈 6:2).

습관6 - 서로 신앙과 생각을 공유하라

- 골 3:16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 엡 5: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 롬 12: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 고전 1:10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된다(엡 4:14-16).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더 깊은 믿음의 일치에 이른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고, 도전하고, 합당한 논쟁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2. 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 세 가지 습관 중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잘 하고 있나요? 제일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가지 공동체 형성의 습관들은 모두 서로 섬기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서로에게 종이 될 것인가.

습관7 -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약 5:16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롬 15:14 서로 권하라(가르치라)
엡 4:25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어떤 죄에 취약하고 그런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통해 죄를 이기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나누지 않으면 쉽사리 자기기만에 빠진다. 삶의 균형(일, 건강, 쉼), 성(sex), 돈의 사용 등이 그런 예이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약점들을 충분히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

-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곳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한다.
- 로마서 15장 14절은 타이르라고 말한다. 즉,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습관8 -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섬기라

엡 4:2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골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갈 5:26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약 4:11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마 5:23-24, 18:15 깨어진 관계를 재건하라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용서(회개) 및 관계 회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은 만일 우리와 어긋난 사람이 생각나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손을 뻗어서 부서진 관계를 고치길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과정을 시작할 책임이 있다.

- 에베소서 4장 2절은 일반적인 명령이다. 서로 용납하라. 작은 짜증거리들에 대해 인내하고 관용하라는 것이다.
-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노엽게 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라고 한다. 노엽게한다(provoke)는 건 멀리하고, 내려다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보다(지능, 타당한 의견, 적절한 행동, 외모, 지위에 있어서) 못하기 때문이다. 투기한다(envy)는 것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분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보다 (지능, 교육, 외모, 지위, 힘에 있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태도들은 갈등을 키워내며, 삐걱거리는 관계를 만든다.
- 야고보서 4장 11절은 비방하는 언어를 금한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친 언어와 태도이다. 이것들은 관계를 깨뜨린다.

습관9 - 우리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섬기라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롬 15:1-2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갈 5:13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공동체에서 당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우는 사고방식이다. 섬김의 마음이다. 주변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것들을 채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인정받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너무 채움을 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착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도록 세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 로마서 15장 1-2절은 우리가 그들의 선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 성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갈 5:13).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빚진 자처럼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롬 13:8). 그리

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셨다.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구절이 서신서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살펴보라(롬 12:10, 13:8; 살전 4:9; 히 13:1; 벧전 1:22, 4:8; 요일 3:1, 3:23, 4:7, 4:11; 요이 1:5).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음으로 깊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3. 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 세 가지 습관 중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잘 하고 있나요? 제일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요?
4.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살펴보세요. 이번 주에 공동체 형성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실천사항을 써보세요.